



구례 지리산 노고단의 여름 풍경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27일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인상적인 구례 지리산 노고단에서 등산객들이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 급속 재유행’
 광주·전남 3개월여 만에
 5000명대 다시 넘었다**
 광주 2890명·전남 2637명 확진

코로나19 감염 재유행으로 광주·전남 하루 확진자 수가 3개월여 만에 다시 5000명 대를 넘어섰다.

2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890명, 전남 2637명으로 총 5527명이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가 5000명 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23일(5544명)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18일 하루 확진자 3026명을 기록한 이후 23일 까지 5일 연속 하루 30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24일에는 주말 검체 채취 감소 영향으로 2000명 대로 주춤했으나 월요일인 25일 4000명 대를 돌파, 전날에는 5000명 가까이 넘어섰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광주 56만1959명, 전남 62만7688명 등 총 118만9647명으로 늘었다.

전날 전남에선 확진자 1명이 숨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총 1076명(광주 573명·전남 503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광주 1명, 전남 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일상생활 도중 감염이 잇따랐다. 전남은 22개 모든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 별로는 여수 466명, 순천 408명, 목포 358명, 나주 221명, 광양 219명, 무안 15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장성 86명, 곡성·영광 각 83명, 화순 73명, 고흥 71명, 해남 65명, 담양 60명, 장흥 49명, 영암 48명, 함평 38명, 구례·보성 각 30명, 완도 29명, 진도 26명, 신안 25명, 강진 16명 순이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빠르게 퍼지면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중간·기말 교사 노트북 해킹’... 학교는 전혀 몰라

**교무실 자유롭게 침입해도 경보장치 등은 무용지물
 노트북 바이러스 차단프로그램 미작동 ‘총체적 부실’**

‘기말고사 교사 노트북 해킹’ 광주의 대동고 학생들이 지난 4월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 답안지(지필평가 문항정보표)를 빼냈지만 학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시험지가 유출돼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구속됐으며 학생은 퇴학조치 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출제 교사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13일 열린 기말고사 답안을 빼낸 학생 A군 등 2명이 지난 4월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이 중간·기말시험을 앞두고 답안지를 빼내기 위해 교사의 노트북이 있는 교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안 출입문·노트북 보안장치 등은 작동하지 않았다.

실제 A군 등은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6월 말 오후 10시께 건물 1층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2층과 4층, 별관에 있는 교무실에 침입해 총 4과목의 답안지를 빼냈다.

교무실 출입문에는 2중 잠금장치가 있어 이들은 다른 교실로 들어가 창문을 연 뒤 난간을 타고 잠금장치가 안된 창문을 열고 교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USB에 담겨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한 뒤 빠져나왔다.

해킹프로그램은 교사의 노트북 화면을 캡처해 숨겨진 폴더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또 교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숨겨진 폴더의 자료를 USB로 다시 옮기기까지 했다.

A군 등이 교무실에 침입하는 동안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으며 노트북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동안 바이러스 차단프로그램도 찾아내지 못했다. 같은 반의 학생들이 문제지 모서리 부분에 답을 적은 뒤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A군의 행동을 의심해 교육청과 학교측에 알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 등이 중간고사 때부터 학교의 모든 교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학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시험지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있어 보여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2번 이상 입력하도록 돼 있고 자체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한다”며 “전산망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보해양조, 기안84 손잡고 ‘여수밤바다’ 소주 리뉴얼

보해양조는 27일 팝아트 작가 기안84와 손잡고 ‘여수밤바다’ 소주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시회’를 콘셉트로 기안84의 팝아트 작품 4점을 전면

라벨에 담고 QR코드를 통해 도슨트의 작품 설명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보해의 로컬브랜드 제품 ‘여수밤바다’는 여수를 상징하는 돌산대교와 반짝이는 별빛을 이미지화한 제품으로 여수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다. ‘여수밤바다’는 도수를 기존 16.9도에서 16.5도로 낮추고 여수지역 해산물과 깔끔한 페어링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이번 기안84와 리뉴얼을 시작으로 제품 라벨을 캔버스로 활용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